

성경환 MBC아카데미 대표이사

인재 양성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경영철학

MBC아카데미의 사시는 “교육을 통하여 행복을 전파한다”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자녀들을 가장 취업시키고 싶은 회사를 만들자”는 비전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모두가 자부심을 갖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요. 이를 위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구성원뿐만 아니라 협력사들과의 소통경영을 통해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주인 의식이 높아지고 일을 즐겁게 하는 풍토가 조성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

조그만 교육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처럼 크고 무거운 주제를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교육 기관이나 인재 양성은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굳이 인재 양성을 한마디로 비유한다면, ‘인재 양성은 투자와 같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방송의 제작환경이 디지털로 전환하는 시점의 방송아카데미의 강의환경

콘텐츠 변화는 물론이고, 통신과 IT, 네트워크의 융합과 발전이 숨 가쁩니다. 다행히도 MBC아카데미의 강사진은 주로 현역 방송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세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자재도 방송사의 수준에 버금갑니다. 여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MBC본사 시설과 현장의 협조를 받습니다.

학생들의 고민

취업이죠. 지금은 취업이라는 것 자체가 목표인데 그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그 달성이 어려울수록 투지가 생기죠. 너무 쉬우면 가슴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목표! 저는 꿈이라고 자주 표현하는데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능동적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꿈을 구체적으로 꾸고 정확한 로드맵을 그려서 꿈을 향해 스스로 다가가야 합니다. 학생여러분 파이팅 합시다!

MBC아카데미의 사업

벌써 19년째가 되는 방송교육은 종합미디어 스쿨입니다. PD, 작가, 방송기술, 카메라, 아나운서, 각종 공연예술, 커뮤니케이션 언론사 공채대비과정 등 미디어에 관한 유니버시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1만5천여명의 방송인을 배출해 왔습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서울과 수도권 일원에 있는 모든 롯데백화점 안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생이 연인원 20여만명입니다.

전국의 지자체와 각 기업에 제공하는 사이버 교육문화 콘텐츠사업과 MBC아카데미-OSS여학원 사업을 전국에 걸쳐 진행하고 있고, 키즈앤와이즈라는 영어유치원, 각종 영어캠프, MBC아카데미 글로벌 교육원에서 하는 유학 사업, MBC아카데미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하는 ENIE와 원자력기사 자격증 교육사업, 토털아트사업인 MBC아카데미 뷰티스쿨사업장이 전국에 있고, MBC아카데미 연극음악원에서 예능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크게 미디어 교육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사업, 또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익사업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10년의 사업계획과 방향

방송교육과 평생교육사업에서의 수익은 매우 작습니다. 재단의 지원을 받는 정규학교와는 달라 회사의 존립 기반을 스스로 창조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다각화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사업 중에도 우선적으로 수익을 고려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영방송사로서의 MBC자회사인 만큼 그 브랜드 가치를 지켜야 하는 데서 비롯된 고민도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실용음악과를 신설하고, 커뮤니케이션 과정, HRD 센터, 유학 사업 등을 하는 글로벌 교육원, 신촌에 제2캠퍼스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교육사업, 이를 통한 행복전파. 이것이 MBC아카데미의 방향입니다.